

부처님께서 예찬한 우바이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 들어 크게 신장하기 시작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양성평등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않았을 뿐, 여성은 인류의 역사를 함께 이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을 가장 평등하게 대해야 할 종교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강하게 존재해왔지만 불교는 이와 같은 차별과 편견을 가장 먼저 타파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느 종교지도자보다 먼저 여성에게 종교지도자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깨달음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사부대중은 불교의 역사를 이어온 주역입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크고 작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2600여년의 불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불교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우바이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위와 복을 비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자세이며, 불교의 역사는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구현한 분들에 의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 속에서 참된 불자로서, 종교인으로서의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부처님 당시의 으뜸가는 우바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교단을 이끌던 시절 훌륭한 우바이들을 칭찬하신 말씀이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증일아함경 청신녀품에는 부처님께서 30여명의 훌륭한 우바이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남전대장경인 증지부경전에는 으뜸가는 우바이 10명을 예찬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제자인 우바이(優婆夷)들 가운데에서 최초의 귀의자는 세나니의 딸인 수자타이다. 승단에 공헌한 자 가운데 제일은 미가라의 어머니인 위사카이다. 많이 들은(多聞) 자 가운데 제일은 쿠주따라이다. 자비심을 가지고 머무는 자 중 제일은 사마바티이다. 선정(禪定)의 힘을 가진 자 가운데 제일은 웃따라 난다마타이다. 특별한 음식을 보시한 자 가운데 제일은 콜리야의 딸 수파바사이다. 간병인 가운데 제일은 수빠야이다.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이 가운데 제일은 카티야니이다. 친밀한 제자 가운데 제일은 나쿨라마타이다. 소문을 통해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제일은 쿠라라가라의 우바이 칼리이다. - 증지부경전 14장 으뜸품 -

가장 먼저 언급되는 수자타는 고행을 마친 부처님께 유미죽을 공양하고 처음으로 귀의하여 우바이가 되었으며, 위사카는 동원녹자모 강당을 건립한 녹자모를 말합니다. 세번째 언급된 쿠주따라는 네번째 언급된 사마바티 왕비의 시종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 그대로 왕비와 시녀들에게 설한 사람이기에 우바이 가운데 다문제일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우전왕의 왕비인 사마바티는 평소 자비관을 닦았으며 다른 왕비의 시샘으로 화마에 희생되는 순간에도 자비관을 놓지 않았다고 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머무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밖에 선정에 힘쓰고, 특별한 음식을 보시하며, 다른 사람을 간병하는데 힘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청신녀들이 으뜸가는 10대 우바이로 부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예찬한 우바이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로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바이는 물론 재가불자의 리더십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며,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들은 만큼 법을 전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 수행을 닦아 자비로운 마음을 놓지 않으며, 고난에 처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입으로는 불법을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불자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전구절은 수없이 많이 알지만 이웃을 위한 실천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두선(口頭禪)으로는 아무런 성취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혼자서만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행동을 일으키고, 실천을 엮어낼 때 불교는 발전하고 사부대중의 조직이 건설해집니다. 불교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주역, 리더십을 갖춘 우바이가 되려면 과거 부처님의 예찬을 받은 우바이들처럼 실천하되, 뜻과 힘을 모은 조직을 통해 보살행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행동과 실천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